

## 인터넷 사회와 「홈페이지」 관리



백석기 / 정보통신교육원장

우리나라 인터넷 인구가 어느새 4백여만명이 넘어섰다. 오다가다 한두 번씩 시도해 본 사람을 합치면 그 숫자는 더 늘어날 것이다. 여기에 맞추어 인터넷 포털(Portal)서비스 업체들이 다투어 문을 열고 전자메일과 홈페이지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등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그러다 보니 웬만한 공공기관이나 기업들에서는 인터넷 사용이 날로 활발해지고 있고 홈페이지를 개설하는 곳도 놀랄 만큼 늘어나고 있다. 각종 브로셔나 직장인의 명함에 전자메일과 홈페이지 주소가 유행되고 있는 것도 근래의 일이다. 그러나 이런 외견상의 변화 뒤쪽에는 매우 우려되는 문제점이 생기고 있다. 우리나라 홈페이지 운영실태를 보면 상당수가 정기적인 업데이트 없이 한물간 묵은 정보로 채워져 있다는 사실이다.

홈페이지 개설에 쏟는 의욕에 비해 그 안에 담긴 콘텐츠의 사후관리에는 너무 등한히 한다는 말이다. 특히 공공기관, 단체 같은 공익기관일수록 이런 사례가 많다. 인터넷이 필수이기로 자리잡는 사회는 곧 속도의 사회요, 네트워크사회이면서, 신용사회이기도 하다.

PC같은 하드웨어조차 1년에 한두 번 이상씩 기술혁신이 일어나고 있다. 소프트웨어 역시 거의 매년 개량된 신제품이 번호를 붙여가면서 등장하고 있다. 향차 이 안에 담길 정보의 변화야말로 얼마나 숨가쁘게 일어나겠는가.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는 정보량은 100일 마다 2배, 1년이면 10배씩 늘어나고 있다. 이런 폭발적인 정보홍수 속에서 고객의 눈길을 사로잡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보다 새로운 정보를 보다 참신한 방법으로 설세없이 올려놓아야만 겨우 관심을 끌까말까이다.

인터넷의 생명이란 바로 최신 정보의 신속한 전달기능에 달려있다. 따라서 정보 갱신이 제때에 이루어지지 않은 홈페이지란 무의미한 정보공해일 뿐이다. 무성의한 낡은 정보는 홈페이지 개설자에 대한 불신감에다 이미지 추락을 부추길 뿐 아니라 정보 수요자의 판단마저 흐리게 하는 악영향까지 주게 된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인터넷사회는 본질적으로 네트워크사회이다. 분업사회가 아닌 고도의 전문성이 상호연계 되어 부가가치를 높이는 공유 협력사회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누구나 자질향상에 태만할 때 공동생활에서 성실성과 신뢰성을 의심받게 되어 요즘 신세대 말로 '왕따' 당하기 십상이다.

그런 의미에서 인터넷 사회에서의 홈페이지는 마치 개인이나 집단의 얼굴과 같은 것으로, 평소부터 인상적이고 매력적인 자기관리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만이 남으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도 우리 사회를 돌아보면 이런 현상들이 인터넷 아닌 다른 곳에서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다. 때도 없이 터지고 있는 아파트, 도로, 교량, 제방 사고들만 봐도 모두 시작은 요란하되 사후관리를 등한히 하는 실적주의, 전시주의의 한계를 들어 낸 예이다.

핸드폰 보급률은 세계 5위의 선진국이 되어 있으나 AS는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이나, 자동차 수출에서도 AS 부족이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도 같은 경우이다. 학벌이나 자격증 하나만으로 버티다가 앞길마저 막막해진 무능력자들이 늘고 있는 것도 평생교육의 대세를 못 따라간 당연한 결과이다. 최근 들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100만원대의 고성능 인터넷 PC 보급을 보더라도 12개 공급업체 대부분이 전국적인 AS 망을 갖추지 못하고 있어 사후관리가 걱정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 모든 것은 패러다임이 달라진 정보사회의 생리를 못 따라가는 잘못된 문화체질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는 더 이상 거창한 구호나 분업적 개인주의, 집단이기주의만으로는 살아가기 힘든 세상이 되어 버렸다. 앞으로는 처음부터 끝까지, 미래 계획까지를 하나로 묶어놓은 종합적이고 시스템적인 시야와 평가가 자리잡게 될 것이다. 이는 네트워크사회의 특성에 따라 명예와 과실, 책임의 공유뿐 아니라 과거, 현재, 미래까지도 한 줄에 엮어 바라보는 새로운 가치관이 자리잡게 될 것이다. 앞으로의 사회에서는 누구나 마우스 클릭만으로 세계의 정보를 한눈에 읽을 수 있게 된다. 전자상거래가 세계시장을 주름잡고 정치, 경제는 물론 교육, 문화, 사회 체제마저도 인터넷을 통해 재편 될 수밖에 없게 된다.

하나의 세계, 하나의 시장으로의 통합을 선도하는 인터넷 통신에서 홈페이지의 중요성이 날로 커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대면접촉에서 남보다 개성적이고 호감이 가는 첫인상이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듯이, 대면접촉이 극도로 제한될 수밖에 없는 인터넷사회에서는 홈페이지가 곧 개인이나 집단의 성패를 가늠하는 후광(後光)효과(Halo Impact)의 열쇠가 될 수 있다. 광활한 정보의 바다에서 쓸만한 대어를 낚아 주는 인터넷 검색사 못지 않게 이제부터는 홈페이지를 책임있게 가꾸어주는 정보 업데이트 요원의 양성에 눈을 돌릴 때이다. 이는 고도의 전문성 없이 단기교육만으로 그 업무를 익힐 수 없다. 직접 출퇴근 없이 재택근무가 가능하며 유사업무 홈페이지의 복수관리도 가능하여 고용창출과 수입 증대에도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 홈페이지 개설자 입장에서 보더라도 저렴한 가격으로 아웃소싱을 할 수 있어 지속적인 홈페이지 관리를 정착시킬 수 있게 된다. 그때쯤 되어야 인터넷시장에서 우리도 공신력 있는 국제 사회인으로서 확고한 자리를 굳힐 수 있게 될 것이다.

백석기(白哲基)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주)데이콤 본부장, (주)정보시대 대표이사, 정보통신부 산하 한국정보문화센터 본부장, 한국정보문화센터 부설 정보기술교육원장, 정보통신연구관리단 평가위원, 한국전산원 국가정보화 백서 편집전문위원, 총무처 행정부문 정보화 시행계획 자문위원, 동아일보사 대학정보화 랭킹 심사위원, 현재 -한국정보통신대학원대학교 부설 정보통신교육원장, 중앙대학교 예술대학원, 고려대학교 자연자원대학 강사